

2016년 8월 키르기즈의 친구들

1. **알라토 그룹홈(보육원)**의 아이들은 여름 기간동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 수련회 캠프에 큰 아이들을 중심으로 참석했습니다. 여기에는 겨울 방학이 없고 여름 방학이 길기 때문에 여름에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캠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들은 공식적인 프로그램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대신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목사 콘스탄틴의 어머니가 이스쿨 호수 근처에 살고 계시는데 두 주일 동안이나 아이들 모두를



초대하여 지내면서 고기도 잡고, 즐거운 여름을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가까이에서 주말이면 보육원의 전체 대청소를 돕기도 하고, 보육원의 운영과 아이들의 성장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원에 한가지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보모인 라이사가 고혈압이 있어서 항시 약을 먹고 있었는데, 열흘 전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이미 이를 전부 터 약간의 증세가 있었는데, 함께 있던 딸이 병원에 가기를 요청했지만 라이사가 쉬면 된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시간이 지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쓰러져서 응급차로 실려 갔지만 이미 중요한 시기를 넘겨서 의식 불명 상태로 한주일을 지내야 했습니다. 교회 가족들이 모두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았지만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장례를 치르고 친척들과 두 딸에게 큰 슬픔을 가져왔지만 그동안의 라이사의 신실한 보모로서의 삶과 신앙이 많은 도전이 되어 모두에게 오히려 위로와 힘을 주고 떠났습니다.

몇 년 동안 큰딸인 따찌아나(35)가 라이사를 도와 같이 보조 보모로 일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따찌아나가 보육원 아이들을 계속 책임지고 돌보기로 했습니다. 어제 보육원의 실제 소유주인 교회 담임 목사와 따찌아나와 함께 만나서 앞으로의 보육원 관리와 책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비록 큰 슬픔과 어려운 시기였지만, 따찌아나가 든든한 마음과 책임감으로 아이들을 계속 돌보기로 해서, 모두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서로 도우며 아이들을 위해 섬기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따찌아나가 신실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계속 섬길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드림아카데미**는 여름에 수업은 쉬고 있지만, 동역하는 나판 선생님네 교회의 수련회에 이곳 학생들이 20여명이 함께 참석을 하여 유익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한국에서 봉사팀이 와서 캠프를 섬겨 주었는데, 저희 딸들이 한국팀과 현지 학생들을 위한 통역자로 섬겨 주어서 수련회 캠프가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순수하게 드림 아카데미를 위한 한국어 캠프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캠프에는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 청년들이 와서 섬기게 됩니다. 초급반을 위한 알파벳 프로그램도 있고, 중급반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준비되어 올해도 아주 유익한 캠프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두 아이가 이번 캠프에도 통역과 보조교사로 섬기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멀리서 와서 섬겨주는 중국의 청년들을 위해, 그리고 참석하는 이곳 현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지 교회(새언약 교회)는 여름에는 사역자들이 교대로 휴가를 가기도 하고, 교회 전체 건물 수리를 위해 재정을 모으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이 얇고 보온재가 충분하지 않아서 보온을 위해 바닥과 벽체를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젊은 성도들 가운데 용접과 건축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함께 시간과 재정을 모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곳 키르기즈에는 교회가 건물과 함께 법적인 허가가 반드시 있어야 집회가 허락되기 때문에 교회 자체와 건물이 법적 등록이 되어 있는 교회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최근 수년 동안에는 새로이 등록되는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미 등록된 교회의 건물에 1부, 2부 또는 3부로 나누어서 서로 다른 교회 공동체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오전에 저희 교회의 예배 후에, 두 개의 공동체가 연이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약 1년 반 전에 등록 신청을 했는데, 아직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같은 새로이 교회를 등록하는 교회와 공동으로 교회 건물을 사용하는 모든 공동체들의 연합과 섬김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슬과 울란 부부는 신앙이 없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지난 달부터 이곳 시내 쪽으로 따로 나와 살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으로 인해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하여서, 가끔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서로에게 잘 이야기가 되어서 다시 독립하게 되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슬은 저희 단체의 비자와 행정을 파트타임으로 일해 주고 있어서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신실한 아슬은 야간으로 회계학을 공부해서 회계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또 야간으로 연합신학교에서 신학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게 주석을 빌려가기도 하며 아주 열심히 자매입니다. 귀하게 일과 공부 가운데 잘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N.T. Wright의 에브리원 주석 번역 작업은 마태, 요한, 마가복음이 출간되고, 누가복음의 마지막 편집 디자인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번역 사역의 책임자인 로빈 교수가 8월 말에 70세가 되는 기념으로 복음서 4권이 모두 출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다리도 불편하고, 작년에는 건강이 악화되어 본국인 호주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다행히 잘 회복되어 지난 1월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짐을 정리하고 갔었는데, 다시 오게 되어 이렇게 복음서 전체가 출간되어 감사에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나머지 신약 시리즈의 9권이 남았지만 분량으로 보면 약 40% 정도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이 번역 사역이 마지막 13권까지 잘 진행되고 현지인들에게 잘 보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아시아에서 헤브론정, 엘레나김 드림